

포스코 민간기업 첫 '하도급 상생결제' 도입

2차 협력사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1차 협력사 법인세 감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협약 체결...민간영역 확산 기대

포스코가 민간기업 최초로 공사계약에 '하도급 상생결제'를 도입했다. 포스코는 지난 14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과 '하도급 분야 상생결제 도입·확산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포스코 유병욱 본부장, 협력재단 김순철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하도급 상생결제는 대기업, 공공기관 등 구매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 직접 지급함으로써 협력사의 대금회수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번 협약식에 앞서 포스코는 지난 6월 하도급 상생결제를 도입했으며, 7월에는 이를 포스코케미칼과 포스코ICT 등 그룹사로 확대했다. 포스코는 하도급 상생결제 도입으로 1·2차 협력사들의 현금 유동성 및 경영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차 협력

사는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결제 일 이전에도 포스코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다. 1차 협력사는 상생결제를 통해 2차 협력사에 지급된 결제일에 대해서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포스코는 이번 협약식에서 하도급 상생결제 도입을 그룹사 전반에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상생결제를 통한 대금결제 비율을 늘리기로 했다. 협력재단은 2차 협력사에 대금지급 보장을 위한 결제대금 예치계좌를 소유 및 운용하고 상생결제 확산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포스코 유병욱 본부장은 "포스코 2차 협력사 대부분이 포항·광양에 기반을 두고 있어 하도급 상생결제 도입으로 지역사회에 대금결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력재단 김순철 사무총장은 "현재 7개



포스코가 지난 14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실에서 협력재단과 '하도급 분야 상생결제 도입·확산 협약'을 체결했다.

의 공공기관에서만 활용하고 있는 하도급 상생결제 시스템을 민간기업에서 자율적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민간영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는 2004년부터 국내 최초로

중소기업에 100% 현금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 현금결제에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현금결제 지원펀드'를 500억원 규모로 운영중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새 팜문화 공동체 '광양 웰니스 팜셀러'

22~24일 서천 고수부지서 테마형 직거래장터

광양의 새로운 팜문화 공동체를 이끌어 갈 '광양 웰니스팜셀러'가 주목을 받고 있다. 광양시는 22일부터 3일간 광양읍 서천 고수부지에서 테마형 직거래장터인 '광양농부들의 웰니스 팜앤파티'를 개최하고



2019 테마형 직거래장터 운영 팜셀러 3인. 왼쪽부터 김지연·임옥천·오정숙 웰니스 팜셀러. <광양시 제공>

팜앤파티를 빛낼 3인의 광양 웰니스 팜셀러를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총 24개 업체가 참여해 광양매실을 포함한 광양의 농특산물로 만들어진 가공제품을 선보인다. 또 다양한 문화이벤트와 함께 도시와 농촌, 시민이 함께하는 팜문화 공동체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행사의 중심에는 '웰니스팜 광양스토리'가 전문성과 경험, 팜문화 교육을 기준으로 선정한 3명의 '광양 웰니스팜셀러'가 있어 눈길을 끈다. 광양 웰니스 팜셀러들은 푸드큐레이션(Food Curation) 분야의 행복탄생을 굿 임옥천 웰니스팜셀러, 푸드테라피(Food Therapy) 분야에서 음식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오정숙 웰니스팜셀러, 아로마테라피

(Aroma Therapy) 분야의 새로운 팜문화를 디자인하는 김지연 웰니스팜셀러 등이다. 웰니스 팜셀러들은 팜문화 교육과 다양한 팜셀러 체험, 분야별 청년 창업 지원 및 팜문화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또 광양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와 새로운 이슈의 가공제품을 개발,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팜문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강금호 광양시 농산물마케팅과장은 "이번 '광양농부들의 웰니스 팜앤파티'는 새로운 팜문화의 가치 창출과 소득 증대,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광양 웰니스 팜셀러들을 비롯한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아름다운 해변 맘껏 감상하세요...광양 해비치로 착공

해변 보행로·바다전망광장 등 1km에 다양한 친수공간 조성

아름다운 해변을 조망하는 수변 공간인 광양 해비치가 착공에 들어갔다. 광양 해비치는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 2단계 공사로 마동IC 접속교에서 삼화섬 일대의 1km 해변에 바다 감상존과 문화·커뮤니티존, 테마휴식존, 체험놀이존 등을 조성한다.

또 달빛해변 구간 중 무지개다리-해오름육교 200m 해변을 연결하는 보행로와 바다전망광장, 수변스탠드 등 이색 그린웨이를 갖추고 마동 삼화섬 상부의 조경 시설을 확충한다. 오는 2020년 말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성과 화제성을 살린 상징조형물과 조각상 등을 추가해 열린 친수공간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머지 800여m 구간의 달빛해변은

2021년부터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해 2022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 2016년 11월 착수한 '광양해비치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은 이번달 최종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지금까지 금호동 무지개다리 입구에 수변전망쉼터를 준공했다. 삼화섬-마동체육공원을 잇는 경관보도교의 해오름육교가 웅장한 위용을 드러내며 9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5대 교량(이순신대교 접속부, 마동-금

호IC접속교, 길호대교, 금호대교) 아간 경관조명사업도 내년 3월 대화축제 전까지 마무리해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을 도심권으로 유인해 체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화열 광양시 관광과장은 "광양해비치로 조성사업은 삼진강변의 망덕포구와 구룡산관광단지의 중간지점에 위치해 도심권 관광과 선적 관광벨트를 구축하게 될 핵심 관광사업"이라며 "이번 사업과 해오름육교, 5대 교량 아간경관조명이 완성되는 내년 상반기에는 시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광양야경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중마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3차 참여자 26일부터 모집

광양중마도서관은 9월부터 진행되는 2019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3차 참여자를 26일부터 모집한다.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우리 동네 도서관에서 인문학을 만나자'라는 슬로건으로 도서관이 중심이 돼 재미있고 유익한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인문학 대중화와 독서활성화를 도모하는 인문독서 진흥사업이다. 오는 9월부터 진행될 3차 프로그램은 '캔버스,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주제로 근대 회화의 신경향과 함께 화가가 바라본 당시 시대상과 역사를 살펴보는 시

간, 근대문화탐방을 가질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2019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5월부터 '우리가 몰랐던 근대의 풍경들'이라는 주제로 인문학 강연 및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상반기에 운영된 1차 프로그램에서는 근대 도시의 탄생과정을 알아보는 '근대 도시 기행'을, 2차는 문화를 통해 근대의 역사를 살펴보는 '근대를 응시하는 세 가지 시선'을 운영하는 등 근대 인문학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지난해 열린 '길 위의 인문학' 3차 프로그램 '영화가 나에게 하는 질문들'.

청년 구직자 '취업 아카데미' 20명 선발 26일부터 교육

광양시가 대기업·공공기관에 취업을 희망하는 20~30대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취업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대기업·공공기관 취업 아카데미'는 '2018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인센티브 사업으로 광양만권 HRD센터가 맡아 수행한다. 20일 오후 2시 광양시에 있는 락히호텔에서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22일 오후 2시 광양만권HRD센터 중마교육장에서 면접을 통해 최종 20명을 선발하고 26일부터 교육에 들어간다. 26일부터 10일간 채용트렌드 이해, 이미지 메이킹, 직무탐색, 입사지원서 작성, 실전 면접, PT 최종 면접대비 등 대기업과 공공기관 입사를 위해 필요한 과정을 교육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1인 방송 크리에이터 입문과정 2기 프로그램 성황리 마무리

광양시는 전남영상위원회와 함께하는 '1인 방송 크리에이터 입문과정 2기' 프로그램을 교육생들의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크리에이터 과정은 1인 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크리에이터 실무 능력을 배우고, 나만의 브랜드 전략까지 세울 수 있는 1인 방송 활동 창작자 입문 교육프로그램이다. 2기 크리에이터 입문과정 교육은 20명의 중·고등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저작권 이해와 트렌드 분석 및 콘텐츠 제작, 영상편집 등으로 진행됐다. 교육생들은 이론과 실무의 종합적 역량을 토대로 뷰티, 게임, 먹방, 브이로그 등 자신만의 색깔을 입힌 콘텐츠를 직접 제작한 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해 조회 수, 좋아요 등으로 평가를 받았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